



미 증시, 외환시장 변동성에도, 실적 기대 등으로 강세

미국 증시 리뷰

26일(수) 미국 증시는 160엔대에 진입한 엔화 환율 등 외환시장 불확실성에도, 마이크론(+0.9%) 실적 심리, 페덱스(+15.5%)의 호실적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완화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0.04%, S&P500 +0.2%, 나스닥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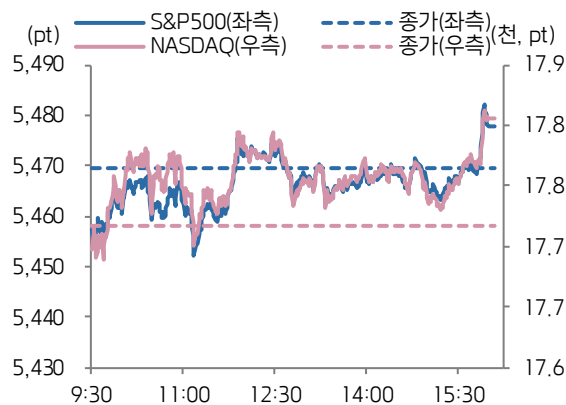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경기소비재(+2.0%), 기술(+0.4%), 커뮤니케이션(+0.1%) 등이 강세, 에너지(-0.9%), 금융(-0.5%), 유틸리티(-0.4%) 등이 약세. 물류업체 페덱스(+15.5%)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가운데, 주주가치 제고 정책 등을 시사한 영향에 힘입어 급등. 리비안(+23.2%)은 폭스바겐이 50억달러를 투자해 동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차세대 배터리 구동 차량을 만들 것이라는 발표에 급등.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0.9%)은 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 상회, 가이던스는 예상치 부합했으며, 컨콜에서도 AI 수요 호조로 인한 공급 부족 및 가격 인상 등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음에도 시간외에서 약 7% 대내외 주가 급락 중.

호주의 5월 소비자물가는 4.0%(YoY)로 전월(3.6%) 및 컨센(3.8%)을 상회하는 쇼크를 기록. 크리스 켄트 호주중앙은행(RBA) 총재는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 정책과 관련해 RBA가 어떤 결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장관은 최근 달러 당 160엔까지 급락한 엔화약세 현상에 대해, 한 방향으로 환율이 움직이는 것이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 또 주요 외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도 사안의 중대성을 가지고 현재의 엔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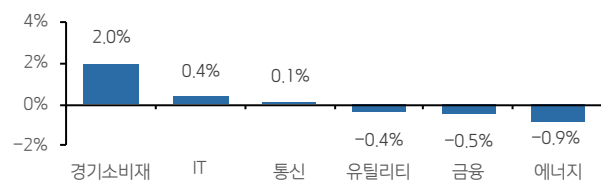
이복현 금감원장은 한국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다소 과한 기업 규제, 상속세 등 세제상의 문제점이 맞물리면서 왜곡된 형태로 기업 역동성을 저해하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억누르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 또 올 하반기 상속세, 금융투자소득 등 자본시장 관련 논의가 될 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언급.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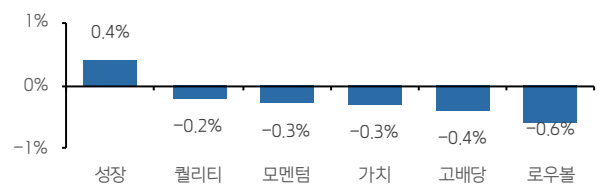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792.05	+0.64%	USD/KRW	1,388.75	+0.1%
코스피 200	383.01	+0.83%	달러 지수	106.04	+0.41%
코스닥	842.12	+0.02%	EUR/USD	1.07	+0.01%
코스닥 150	1,359.21	-0.46%	USD/CNH	7.30	-0.01%
S&P500	5,477.90	+0.16%	USD/JPY	160.72	-0.06%
NASDAQ	17,805.16	+0.49%	채권시장		
다우	39,127.80	+0.04%	국고채 3년	3.208	+0.8bp
VIX	12.55	-2.26%	국고채 10년	3.275	+0.5bp
러셀 2000	2,018.12	-0.21%	미국 국채 2년	4.747	+0.5bp
필라. 반도체	5,452.32	-0.28%	미국 국채 10년	4.329	+8.2bp
다우 운송	15,342.88	+1.51%	미국 국채 30년	4.462	+8.4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915.94	-0.41%	WTI	80.8	-0.12%
MSCI 전세계 지수	803.73	+0%	브렌트유	85.25	+0.28%
MSCI DM 지수	3,520.21	-0.01%	금	2309.3	-0.17%
MSCI EM 지수	1,086.20	+0.08%	은	28.76	-0.6%
MSCI 한국 ETF	65.24	+0.32%	구리	435.6	-0.3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21%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91.7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장 마감 후 발표된 연준의 은행 건전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점검 결과 양호 2. 마이크론 실적발표 이후 시간외 급락, 엔비디아 역시 1%대 하락전환 3. 반도체 업종 주가가 쉬어갈 때 기존 주도주 내에서 순환매 랠리가 이어지는 국면 연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페덱스의 실적 서프라이즈 및 비용절감 효과와 낮은 재고 수준에 대한 긍정적 가이드선 제시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안도감을 제공. 또한 장 마감 후 발표된 연준의 은행 건전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점검 결과 역시 31 개 은행이 모두 통과하며 침체에 대한 우려 상쇄시켜 주며 증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양호.

다만 시장의 우려는 마이크론의 실적에 집중. 마이크론 회계년도 3 분기 매출 68.1 억 달러(YOY 81.5%)로 컨센서스 66.7 억 달러(YOY 77.9%) 상회. DRAM 매출액 46.9 억 달러(YOY 75.6%)로 컨센서스 47 억달러(YOY 75.9%)에 부합, NAND 매출액 20.7 억 달러(YOY 103.8%)로 컨센서스 18.2 억달러(YOY 79.3%) 상회.

4 분기 가이드선 매출액 74~78 억 달러(YOY 89.5%)로 기존 컨센서스 75.9 억 달러 부합하는 수준으로 제시. 다섯개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기록, 양호한 실적에도 시간외 6% 대 하락하는 것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가이드선과 올해 CAPEX 전망치 가이드선 80 억달러로 유지한 것이 보수적이라는 평가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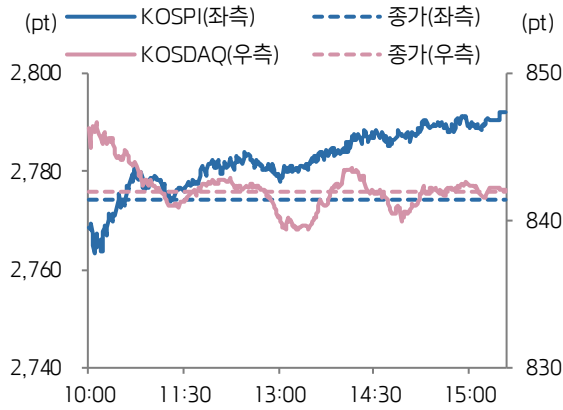
AI 수요 호조로 인한 공급 부족 및 가격 인상 등 AI 기대감은 유효. 그러나 밸류에이션 부담과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장후반 반등에 성공한 엔비디아 역시 시간외 1% 하락 전환. 금일 본장에서 반도체 업종 반등 성공 여부에 따라 반도체 조정 국면이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

26일(수) 국내증시는 엔비디아 반등,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에 HBM, 반도체 소부장 등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원/달러 환율 약세가 상단을 제한 (KOSPI +0.64%, KOSDAQ +0.02%)

금일에는 전일 반도체 업종의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 선반영 인식 속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개별 업종 이슈에 따른 차별화 장세 예상. 반도체 업종 주가가 쉬어갈 때 화장품, 음식료, 자동차, 전력기기 등 기존 주도주 내에서 순환매 랠리가 이어지는 국면 연장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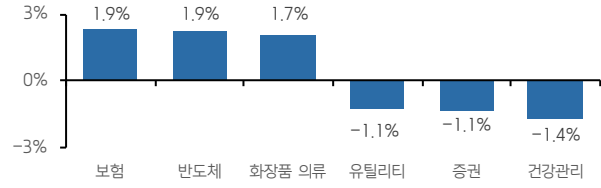
마이크론이 엔비디아로 납품하는 HBM3E 의 판매량 및 전통 메모리인 D 램과 낸드의 가격 전망이 국내 반도체 업종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이크론 시간외 급락 영향은 장중 변동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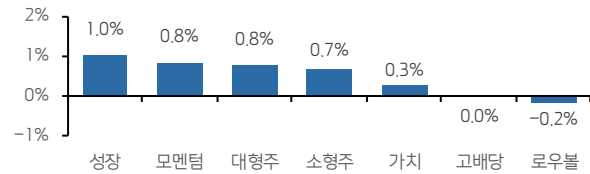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